

“BTL사업때 원자재 분리 발주를”

〈임대형 민자사업〉

광주시장 초청, 광주·전남 中企인 간담회

“공단내 견제율을 높여 설비증설 유도해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공업단지내 낮은 견제율 때문에 설비증설이 곤란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 초청,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중훈 광주·전남레이콘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신하고 있는 신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그 동안의 업무관행 등으로 상당수의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공익목적의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사업도 원자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지방 중소기업들의 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현성테크노 대표는 “하남산단·소촌공단 등의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견제율이 60~70%로 제한돼 공장신축이나 설비증설이 어렵다”면서 “양질의 공장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견제율을 70~8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재룡 해표산업 대표는 “국내에서 기술연수를 한 다음 해외법인에 재배치되는 인력들의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재입국 사증 발급인증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태호 여수서시장 이사장은 공제기금 가입요건 완화 및 무보증 대출한도 확대를, 백인식 자동부분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최봉규 광주·



박광태 광주시장(가운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장춘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오른쪽) 등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다. /니름기자 mjna@kwangju.co.kr

전남플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은 하남산단내 교통불편 해소를 각각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광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시멘트·레이콘·아스팔트 등은 제품의 특성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신속히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특성을 고려, 신공공구매제도는 물론 BTL 공사자재 분리발주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요건 완화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등 법적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공제기금 무보증 대출의 경우 부실발생시 기금을 크게 잠식할 소지가 있어 현 기금 재정이건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축산물 무역적자 45억 6,634만달러

곡물가 인상·육류 수요 늘어 ... 작년보다 32% 증가

세계 곡물가격 인상, 수입육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적자규모도 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T)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농축산물 54억5천237만달러어치(1천171만)를 수입하고 8억8천603만달러어치(55만)를 수출, 총 45억6천634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늘었으나 수출은 7.7% 증가하는데 그쳐 적자규모도 작년 동기의 34억5천729만달러보다 32.1%나 확대됐다.

이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적자액은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넘어 113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축산물 적자는 최근 ▲2002년 61억7천695만달러 ▲2003년 66억4천548만달러 ▲2004년 72억7천872만달러 ▲2005년 76억8

천633만달러 ▲2006년 86억8천538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5월 주요 수입 상대국별 적자는 미국(11억3천459만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0억5천346만달러), 호주(6억1천558만달러), 브라질(1억8천453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우리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인 일본·러시아·아랍에미리트연합·홍콩 등에 대한 수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 일본 농축산물 흑자는 1억4천111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3% 줄었고, 러시아(6천800만달러)와 아랍에미리트연합(4천743만달러), 홍콩(4천725만달러) 등에 대한 흑자도 각각 8.6%, 4.2%, 0.5% 감소했다.

이처럼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에탄올 등 대체연료용 수요증가에 따라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오른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육류가격으로 인해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도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10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자기자본 10배 차입 가능

10월부터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부동산투자를 위해 차입할 수 있는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리츠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검토 중인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조만간 공포하고 10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가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돼 있던 한도에서 ‘자기자본의 10배까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리츠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져 매입가가 큰 부동산도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2조6천억원 정도인 리츠 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리츠 발생 주식중 30%까지만 인수할 수 있도록 했던 한도를 폐지, 연금금이 보다 활발하게 리츠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금호제주리조트 재개장 종합휴양시설로 탈바꿈

금호제주리조트가 아쿠아나 물놀이 시설, 야외수영장, 스파 시설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탈바꿈한다.

금호제주리조트는 2년 6개월간의 증축 공사끝에 오는 7월 1일 영업을 시작한다. 기존 객실이 50실에서 242실로, 대지면적 2천평에서 9천300평으로 늘어났고 지상 7층, 지하1층 규모로 증축했다.

객실은 패밀리룸(38실), 스위트룸(194실), 로얄스위트룸(8실), VIP(2실)형으로 다양하게 구성됐고, 이중 5, 6층은 프리미엄급 객실로 고급 호텔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공사를 통해 아쿠아나 물놀이 시설, 야외수영장, 스파시설 등과 부대시설로 멀티플렉스(실시간 동영상)노래방, 호텔식 레스토랑, 조깅길, 오락실, PC방 등을 새로 갖췄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은행, 고객 신용관리 간간해진다

내년 초 신BIS 협약 도입 대출때 신용도 반영 강화

내년부터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 평가가 강화된다.

신용도가 좋을수록 은행 대출 때 더 많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힘들어지는 등 지급보다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법 감독 규정에서 신BIS 협약의 도입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현행 금융감독 당국이 정한 현실적 기준이 아닌 표준방법과 기본 내부등급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표준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지정

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신용 위험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의 신용 평가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부등급법 가운데 기본형은 채무자의 부도율을 은행이 자체 추정하고 부도 때 손실률 등을 감독기관의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급형은 채무자의 모든 위험 요인을 은행이 평가하는 것으로 2009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또 전산시스템의 마비나 천재지변 등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에도 대비해서 적절한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 적정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처럼 단기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편중 위험을 평가하고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점검하게 된다. /연합뉴스



중기 현장으로 청취한 김기문 中企 중앙회장 “신공공구매제 8월까지 고치겠다”

“충분한 검토없이 신공공구매제를 시행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8월까지 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여부를 듣기 위해 지난 22일 광주에 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53·로osan 대표)은 “소수업체의 수주특점 방식과 BTL 공사

자재 분리발주 등을 통해 지역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업연수생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 김 회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맞춤형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라며 “청년채용촉진기사를 활성화해 청년실업과 인력난 해소에 앞장설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기업을 기업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세 부담이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며 “상속세 면제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신공공구매제도=지난해 말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신을 초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된 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옴니카드’ 출시 3개월만에 6만좌 돌파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의 독자브랜드 상품인 옴니카드가 출시 3개월만에 전국적으로 6만좌를 돌파하면서 카드시장의 빅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옴니카드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 ‘Edu’(학원업종 이용시 10%~40% 할인혜택 부여), ‘Tour & Navi’(적립포인트로 네비게이션 제공), ‘하나라 RF’(농협판매장 최고 10% 할인혜택) 3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구성해 고객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주본부는 지난 21일 관내지점에 텔런트 이한위·조재현(사진 앞줄 왼쪽·오른쪽)씨를 초청, 카드발급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를 실시했으며 네비게이션이 제공되는 옴니카드의 판매할



등을 전개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ASA FOR CHILD & JUNIOR ROOM

SASA&틈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행가구 시장의 지존임을 새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보: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송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하였기에, 웬이,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리어매니저 0명 모집

호남지역총괄 (株)행복출발 (062) 527-3388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